

19세기 프랑스의 인종관과 플로베르(Flaubert)*

민경숙

용인대학교 교양과정부

본 논문은 우선 19세기 프랑스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학계, 문학계의 동향을 탐색한 뒤,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 플로베르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당대의 프랑스의 인종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당대의 대사건이었던 프랑스 대혁명의 발발, 알제리 침략, 다아윈의 『종의 기원』과 『천일야화』의 번역출판, 이국취미의 낭만주의의 보급 등 별개의 사건들이 어떻게 공조하여 인종차별의 담론을 형성하였는지, 그리고 프랑스가 어떤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제국주의의 정치 형태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이 논문의 중요 관심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베르의 작품을 통해 그 속에 재현된 인종관 뿐 아니라 인종관에 대한 비전까지도 읽으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I. 서론

인종이란 우선적으로 타자와의 선천적 ‘차이’를 인식하면서 생긴 분류이다. 만약 인종들간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인종들간의 차이는 ‘다양성’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서로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그 결과 권력관계가 성립되면, 선천적 차이에 사회적 차이가 부가되어 대립, 지배, 저항, 주종 등의 관계가 정립된다. 즉 타고날 때부터 어떤 인종이 열등하다기보다는 인종간의 사회적 관계가 성립되면서 지배 인종은 우등한 인종으로, 피지배 인종은 열등한 인종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각인되는 것이다.

콜레트 기요맹(Collette Guillaumin)은 그의 책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권력 그리고 이데올로기』 *Racism, sexism, power and ideology*에서 17, 18세기에도 식민지화가 진행중이었으나, ‘인종’이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였다고 말하고 있다. 계몽사상은 개개인성(individuality)에 대한 발견을 가져왔고, 프랑스 대혁명과 그에 따른 반복된 정치적·사회적 동요와 불안은 사회 계급을 단순하게 귀족과 평민으로 그룹은 각 그룹의 경계 속에 갇혀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프랑스의 위정자들은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여 영토, 언어, 헌법, 법률을 확정지음으로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 조성비(해외지역연구)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연구는 3인 공동연구로, 「19세기 서구의 인종관(콘라드, 쿠퍼, 플로베르를 중심으로)」의 일부임.

써 여러 계층간의 위계질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인종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졌고, 인종간의 불평등 개념도 짚기 시작하였다 (Guillaumin 1995: 33-35).

인종에 대한 관심은 문학작품에도 반영되어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설가 플로베르(Gustave Flaubert)는 제1차 포에니 전쟁 당시의 카르타고를 소재로 하여 쓴 작품 『살랑보』 *Salammbô*의 도입 부분에서 용병들에 대한 묘사를 다양한 인종들의 묘사로 대체한다. 다양한 용병들의 모습은 각 인종의 특색을 화려하게 부각시키고 있어 호화스러운 향연 못지않은 화려한 장관의 장면을 구성한다. 플로베르는 이 작품 전체를 통해 모든 등장인물들을 인종으로 정체화하고 있으며, 주요 인물을 제외한 대개의 인물들에게는 이름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인종으로 정체성을 종결시키고 있는데, 용병들의 공동체 내에서 용병들간의 차이를 언급하며 각 인종을 묘사할 때에는 ‘다양성’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리지만, 카르타고인들과 비교하여 묘사할 때에는 문명인과 야만인이라는 사회적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긴 머리털을 머리 뒤편대에 틀어올린 고올인¹⁾들은 수박과 레몬을 껍질 채 와작 와작 씹어 먹고 있었다. 지금까지 새우를 본 적이 없는 니그로들은 새우의 빨간 수염으로 얼굴들을 긁어본 하였다. 한편, 수염을 깎고 살결이 대리석 보다도 흰 그리이스인들은 접시에 남은 물건들을 뒤로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Flaubert, 1862: 46-47).

이 작품은 진지진능한 3인칭 화자의 몰개성적인(impersonal) 시각으로 쓰여진 작품이지만 배경이 카르타고인 만큼, 이 용병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당대에 현장에서 이들을 바라보던 인물 즉 카르타고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화자는 대개는 각 용병, 즉 각 인종들의 독특한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지만, 위의 인용에서는 이들에 대한 묘사의 내용을 부정적인 성격의 단어들의 구성으로 서서히 바꾸고 있다. 이 장면이 이들에게 카르타고의 음식을 제공한 후 음식에 대한 인종들간의 문화적 차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용병들이 카르타고의 음식을 대접받고 보이는 반응에 대해 묘사하면서 이들의 야만성을 드러내고 있다. 인종들간의 음식의 차이, 그리고 식사습관의 차이가 문명인과 야만인의 구분을 낳고 있다.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인들이 갖고 있던 인종관은, 인종이란 ‘역사나 경제와 상관없이 타고날 때부터 자신 속에 내재된 내인성의 특성 때문에 다양해진 인간의 그룹들’이었고, 그래서 타고난 차이는 변화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었다. 이런 인간에 대한 분류법은 당시 널리 알려져 있던 식물 분류학 등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던 분류학을 인간에게 적용한 것으로,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어떤 속성을 갖고 태어나며, 이것은 변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그 인간의 일생을 지배한다는 결정론적인 인종관을 낳았다.

1) Gaule: 지금의 프랑스에 해당하는 지역. 고대 로마인이 지은 이름

그런데 기요맹은 개개인이 전용(appropriate)되는 이유는 그 개개인이 자신 속에 내재된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개개인에게 특수한 성질을 부여하는 전용화된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특정한 사회적 집단이 그런 집단으로 지칭되는 이유는 재현 과정(representational process), 즉 생물학적 특질에 사회적 의미가 부착되는 과정에 의한 것이며, 개개인을 인종적인 범주 속에 할당할 수 있는 것도 이들을 사회적으로 구성하여 귀속시킬 수 있는 사회 범주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인종이 하나의 인종으로서 의식되는 것은 그들의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위치시킬 수 있는 사회적 범주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비단 기요맹의 것만이 아니라 20세기 초의 인류학자 라마르크(Chevalier de Lamarck)에서 시작된 사회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와 일맥 상통하는 것인데, 이 이론은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을 생물학적인 견지에서만 다루던 19세기의 인류학이론과 달리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다룬 것이다 (Stocking, 1968: 234-269). 이들은 모두 결정론적인 인종관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19세기의 프랑스가 결정론적인 인종관을 어떻게 구성하여 인종차별을 제도화하였는지, 그리고 이런 체계화된 인종차별이 어떻게 다양한 텍스트를 통하여 재생산되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데 좋은 판단 기준이 된다.

서구인들의 인종관을 연구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종은 유대인과 흑인이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이들이 인종차별의 가장 큰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유대인 외에도 여러 부류의 동양인들이 유럽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당시의 '동양'은 현대에서 말하는 동양의 의미와는 달리 대개는 이집트를 위시하여 지중해에 면한 북아프리카와 오늘날의 중동지방을 일컬었다. 물론 인도를 포함한 인도양 주변 국가들과 중국도 동양에 포함되었지만 오늘날처럼 여행이 쉽지 않던 당시에는 북아프리카와 시리아 등의 근동지방, 페르시아 등의 중동지방이 실제적인 동양의 역할을 하였다. 더군다나 19세기 프랑스의 인종관을 연구하면서 이것의 실례를 플로베르의 작품에서 확인하는 본 논문에서는 플로베르의 작품에 나타난 북아프리카와 근동지방, 중동지방의 동양인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우선 본 논문은 19세기를 여는 대사건인 프랑스 대혁명이 프랑스인의 인종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혁명의 이념들이 인종관과 관련되어 19세기에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에 주목할 예정이다. 그리고 19세기 말 제국주의가 팽배해질 때까지 어떤 사회적 범주가 형성되어 인종차별을 가능케 했으며, 이런 인종차별과 더 나아가 제국주의를 낳은 학문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의 유럽중심주의와 인종관이 제국주의라는 정치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프랑스의 제국주의에 희생물이었던 특정 인종들이 텍스트에 어떻게 재현되어 있는가를 연구해 보는 것도 이들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베르의 동양관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서구의 일반 지식인의 사고에 각인된 인종관의 내면적 성질을 파악하려고 한다. 정치적, 학문적 배경의 연구, 여러 텍스트에 재현된 여러 양상등 외형적 모습과 한

작가의 전 작품에 다양하게 재현되어 있는 모습 간의 상관 관계를 모두 관찰해 보면 19세기 프랑스의 인종관의 총체적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II. 인종 차별의 논리

1789년 7월14일 파리 시민들은 왕권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왕권 내지는 모든 권위에 대항하여 개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후 8월26일 인권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계몽사상의 중요한 결실 중의 하나인 이 선언문에 언급된 ‘인간’에는 과연 모든 인간이 총망라되어 있는가?

유럽인들의 인종관을 관찰할 때 우선적으로 관찰대상이 되는 민족은 ‘유대인’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성서에 나타난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되어 중세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처형, 학살, 추방되는 등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으며, 계몽사상이 대두된 후에야 비로소 지식인들의 배려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프랑스 혁명 직후, 인권 선언문이 공포되던 시점에도 프랑스인은 유대인을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데 여전히 궁색하였으며, 1791년 9월21일에 이르러서야 헌법제정의회가 유대인의 시민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헌법에 의한 인정이었을 뿐 프랑스인 뿐만 아니라 전 유럽인의 뇌리에 박힌 편견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아 19세기 말 그 유명한 드레퓀스 사건을 탄생시키게 된다. 플로베르의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 작품인 『부바르와 페퀴세』 *Bouart et Pécuchet*에서도 고리(高利)의 술책을 쓰는 상인 구트만이 ‘더러운 유대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선언문에 언급된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된 또 하나의 부류는 유럽인들이 식민지에서 데려와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이었다. 18세기의 사전에 ‘negro’와 ‘slave’가 같은 뜻으로 쓰여져 있듯이, 노예는 대개 피부색이 다른 흑인들이 대부분이라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보다도 정도가 심하였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관용도 시간이 더 걸려 1848년 제2공화국이 들어서야 흑인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노예제도도 금지되었다. 앞의 인용에서도 흑인들은 ‘니그로’로 정체화되어 있으며 인종으로 구별되지 조차 못하였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유럽인들에게 유대인이나 아프리카인, 그리고 더 나아가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심어 주고, 자신들에 대한 엘리트 의식을 키워 준 것도 역시 계몽사상이었다. 16세기 이래로 계속된 유럽 각국의 팽창주의의 성공은 유럽인들의 우월감을 고취시켰으며, 유럽의 지식인들, 특히 계몽사상가들은 이런 우월감을 당연시하기 위해 그리고 영원히 존속시키기 위해 이론적 근거를 찾기 시작하였다. 우선 그리스 신화에서 유럽의 탄생신화를 발췌하여 유럽을 신의 작품으로, 특히 가장 위대한 제우스신의 작품으로 미화하였으며, 노아의 아들 중 야훼를 유럽인들의 조상으로 그려놓은 성경을 유럽인들의 탁월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삼았다. 삼은 저주를 받아 아프리카인이 되었으므로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결국 유럽인들은 그리스·로마

시대의 문명의 우수성,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을 근거로 하여 유럽중심주의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에 고취된 일부 지식인들은 프랑스 혁명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어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La Nation unique)'가 되기를 바랐으며, 당연히 프랑스가 그 국가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의 순수한 의도는 모든 인간이 자유권, 평등권을 누리는 인간 해방의 유토피아 건설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주장은 위정자들에게 오히려 제국주의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자신들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그리고 그 우월한 사고와 문명을 타민족과 나누겠다는 박애정신이 우선적으로 타민족을 지배해야 한다는 구실을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당대의 프랑스인들이 갖고 있던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개념이다. 어원상으로 볼 때 라틴어 natio(출생 naissance)는 gens(선조 souche, 민족 peuple, 인종 race)의 계보에 속하는데, 이는 그리스어 genos(출생 naissance, 가족 famille, 혈족 parenté)의 어휘를 계승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라는 어휘는 출생과 자손으로 구성된 공동체 개념으로, 육체에 의해 얽힌 생물학적인 가장 강력한 연대 집단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프랑스인들은 이 개념을 수정하였다. 위에서 보았듯이 프랑스 혁명 이후 전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피력한 지식인이 있었듯이, 혁명 이후의 프랑스인들은 국가를 부족이나 민족보다 한층 고차원적인 사회 형태로 간주하여, 1791년 헌법에서는 프랑스인의 피를 받지 않았더라도 프랑스에 5년 이상 거주했고 부동산이나 배우자를 취득했다면 프랑스 시민으로 인정하였고, 1793년 헌법에서는 보다 더 너그려져 1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이나 배우자를 취득했거나 양자를 입양하였거나 노인을 부양하면 프랑스 시민으로 인정하였으며, 앞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입법부가 가치를 인정한 사람은 프랑스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받아들여 프랑스는 국가의 개념을 민족, 혈통, 문화적 공동체에서 법률적 그리고 역사적 공동체의 개념으로 바꾸었으며, 한 인종을 중심으로 국가를 구성하려는 독일과 달리 다양한 인종이 조화를 이루는 곳,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이 사실은 프랑스가 독일과 알사스 지방과 로렌 지방의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을 때 양국의 역사가들이 벌인 논쟁에서도 증명된다.

국가를 구별하는 것은 인종도 언어도 아니다. 사람들은 사상, 관심, 애정, 추억, 희망이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이룩할 때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 가슴 깊이 느낀다. (Fustel de Coulanges, 『알사스 지방은 독일에 속하는가 프랑스에 속하는가?』 *L'Alsace est-elle allemande ou française?* 1870년 10월27일²⁾)

이처럼 프랑스 혁명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인간에 대한 개념, 국가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여 보다 열린 정책으로 유태인과 노예를 포용하고 타인종을 법률적으로 끌어

2) 위의 인용은 Liauzu, Claude, 1992, *Race et Civilisation*, Paris: Syros/Alternatives, p 74에서 발췌한 것임.

안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이런 포용성은 혁명을 완수시킨 위대한 국가로서의 자부심의 결과로 자신들의 중심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국주의 정책을 교묘히 뒷받침하게 되었고 프랑스로 밀려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배타성을 잉태하게 된다. 열린 정책과 급격한 산업화 덕분에 이민자들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나날이 증가하는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을 바라보면서 프랑스인들은 남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에 대하여, 북부 지방에서는 벨기에인에 대하여 등등 새롭게 여러 갈래의 다양한 배타성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모든 인간의 자유권과 평등권 그리고 박애정신을 외치던 프랑스인들에게 이렇듯 인종 차별이 자연스럽게 정착된 여러 원인 중의 하나는 19세기에 창궐하던 과학만능주의(scientisme)에 있다. 19세기는 자연과학이 발달한 시대였고, 과학이 세분화되면서 의학, 생물학, 생리학, 인체측정학, 유전학, 관상학 등 다양한 학문에 대한 전문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플로베르를 예로 들자면, 유명한 외과의사의 아들이었던 만큼 과학적 전문지식을 쉽게 습득하였고 그래서 그는 그 지식을 자신의 작품 속에 상세히 반영하곤 하였다. 그러나 비단 플로베르 뿐만 아니라 당대의 프랑스인은 단순한 농사에도 화학을 응용하려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문지식을 숭배하는 경향이 컸다. 이런 과학 만능주의는 여러 방면에서 유용하였으나 많은 피해도 가져와, 플로베르는 『부바르와 페퀴세』 *Bouvard et Pécuchet*에서 과학 만능주의와 실증주의의 허구성을 풍자하고 있다.

당대의 과학자들은 정도가 심할 정도로 과학을 맹신하여, 과학이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누구의 뇌의 무게가 평균 뇌의 무게보다 얼마가 더 무겁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으며, 피부색, 머리카락, 수염, 얼굴의 각도, 둔부 지방의 정도 등을 세밀하게 측정하고 수치화하여 인간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이용하였다.

18세기의 인류학은 철학의 한 갈래로 인간의 자질과 성향, 재능, 행동 등을 분석하여 총체적으로 인간을 파악하려는 학문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서 인류학은 여기에 비교해부학까지 적용하여 인간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인류학자 폴 브로카(Paul Broca)는 특히 두개골학에 큰 관심을 가져 두뇌의 무게와 지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평균적으로 뇌의 질량은 노인보다는 성인에게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평범한 사람보다는 훌륭한 사람에게서 열등한 인종 보다는 우월한 인종에게서 더 크다. ... 얼굴의 경사도와 돌출정도, 소위 악골돌출(prognathisme), 그리고 피부의 검은 정도, 두발의 곱슬거리는 정도, 지적, 사회적 상태의 열등성은 자주 서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 다소 하얀 피부, 윤기있는 두발, 정악두개(orthognathe)의 얼굴은 인류 중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민족의 속성이다. 검은 피부, 곱슬머리, 악골돌출의 얼굴을 가진 민족이 문명을 가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의학 백과사전』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de sciences médicales*, 제5권, 1866³⁾).

3) 위의 인용은 Liauzu, Claude, 1992, *Race et Civilisation*, Paris: Syros/Alternatives,

인류학자들은 같은 조상을 가진 인류가 지구상에 널리 퍼져 살면서 자연적, 사회적 영향을 받아 우등한 민족부터 열등한 민족까지 다양하게 변화되었다는 인류동조론(monogénisme)을 주장하는 부류와 인류다원론(polygénisme)을 주장하는 부류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으나, 그들의 결론은 한결같이 위의 인용에서처럼 인종들을 우등한 인종부터 열등한 인종까지 위계질서화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생물학은 인류학과 결합하여 19세기말 유럽의 지성계를 강타한 결정론을 낳았으며, 무엇보다도 다윈의 『종의 기원』 *L'origine des espèces*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프랑스에서는 클레망스 르와이에(Clémente Royer)에 의해 1862년 번역 출판되었다.

결국 다윈의 이론은 우리에게 우리의 참된 기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많은 철학 이론, 도덕 이론, 종교 이론, 정치제도 등이 틀렸음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론들은 너그러웠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틀린 것들로 모든 인간들 사이의 불가능한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였고, 그러므로 자연을 거스릴려고 하였다. 다양한 인종들 간의 불평등 만큼 더 분명한 사실은 없다. 같은 인종의 다양한 개개인 사이에서도 이 같은 불평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Royer, 1862, 『종의 기원』에 부친 서문에서⁴⁾).

생물학은 결국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셈이 되었고, 인류학은 이를 기초로 하여 인종들간의 위계질서, 그리고 더 나아가 식민지화의 합법성을 이론화하게 된다.

식민지 확보를 위한 진출을 감행하는데 도움이 된 또 하나의 학문은 지리학이었다. 19세기는 유럽의 각국들이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빈번하게 항해하던 시기라 지리학은 매우 유용한 학문이었다. 1821년에 창립된 지리학회는 1860년에는 300명을, 1880년에는 2,000명을, 그리고 1881년에는 9,500명을 회원을 둘 정도로 인기가 급증하였고, 이들이 개최하는 학회에는 탐험가, 정복자, 기술자, 경제인 등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수에즈 운하를 만든 레셉스도 이 학회의 회원이었다. 이 학회의 회원이었으며 1862년 《프랑스 경제인지》 *L'économiste français*를 창간한 쥘르 뒤발(Jules Duval)은 알제리의 개척자이며 행정관이기도 하였는데, 식민정책의 대표적인 찬양자였다.

식민지화는 인류의 가장 밝은 국면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식민지화는 인류의 외적인 발현이다. 식민지화는 지구의 탐험이며, 인구이식이며, 개간이다. 진보의 원천이다. 잘 조직된 업무덕분에 부와 행복이 서서히 지구상의 모든 불행과 불모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Liauzu, 1992: 121-2).

pp. 95-96에서 발췌한 것임.

4) 위의 인용은 Liauzu, Claude, 1992, *Race et Civilisation*, Paris: Syros/Alternatives, p 89에서 발췌한 것임.

이외에도 민족지학(ethnographie)에 관한 관심과 문헌학(philologie), 언어학에 대한 연구가 타인종의 열등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특히 문헌학은 언어와 문명 그리고 인종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프랑스인들의 관심을 썬어에서 동양의 언어까지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르낭(Renan)은 썬어를 분석하여 그 언어가 추상적 개념을 표현할 수 없는 단순한 언어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썬족이 불안정한 인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아리아족의 언어는 훨씬 우월하며, 특히 동사 변화가 훌륭하여 후에 힌두어, 그리스어, 독일어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아리아족과 썬족의 언어사의 비교가 권력관계의 비교로 탈바꿈되면서 이 학문 역시 인종간의 위계질서를 설정하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19세기의 프랑스는 동양에 대한 관심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동양에 대한 연구는 1312년 유럽의 각 대학에 아라비아어, 그리스어, 헤브루어, 시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 강좌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으나, 동양에 대한 열병과도 같은 관심이 고조된 것은 18세기 중엽부터였다. 이 시기는 낭만주의의 발아시기로, 이 때부터 동양은 이국성, 신비성, 심원함, 생식력 등을 상징하기 시작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정열이 팽배했듯이, 이번에는 동양에 대한 정열이 활활 타올라 1829년 빅토르 위고(Victor Hugo)는 “루이 14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리스 애호가였으나, 이제는 모두 오리엔탈리스트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동양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도 각 분야에서 배출되어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문헌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동양을 연구하였고, 그래서 당대의 대표적인 동양학자인 키네(Edward Quinet)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종교의 천재』 *La Génie de Religions*에서 이런 현상을 ‘제2의 르네상스’라고 불렀다. 제1의 르네상스 운동이 중세를 마감하고 그리스, 로마에 대한 향수와 인본주의에 대한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면, 제2의 르네상스 운동은 신교전주의를 마감하고 동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문화들이 동양에서 유래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양을 서양 문화의 기원, 더 나아가 문화 전체의 기원으로서 새롭게 자각하게 된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 동양을 동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동양학에 대한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연구한 동양은 대개 현실을 무시한 연구였고, 텍스트를 통한 연구였다는 점이다. 플로베르가 한 작품을 구상할 때마다 수십권에서 수백권의 책을 쌓아 놓고 서재에 틀어 박혀 집필에 몰두하였듯이, 당시의 동양에 대한 연구 역시 대개는 책이나 사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듯 동양학은 카이어난(V. G. Kiernan)이 말한 것처럼 ‘동양에 대한 유럽의 집단적인 백일몽’을 양성하였으므로, 그야말로 ‘동양에 대한 열병’에 걸렸다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며, 그만큼 이 학문의 오류 가능성은 컸다. 동양학자들이 동양에 대한 냉철한 판단보다는 동양의 신비성을 강조하였으므로, 실제로 경험한 동양이 이런 막연한 동경을 실망시킬 때에는 동양을 형편없이 평가절하하는 이중적인 오류를 자주 범하였다.

III. 텍스트에 나타난 동양: 텍스트성의 세계

19세기의 프랑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권위에 대한 반복된 저항과 승리,’ ‘개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 ‘학문과 과학에 대한 신뢰’ 등이다. 절대권력 뿐 아니라 기독교로부터 해방되자, 지식인들은 모든 사물의 성질과 사회현상 등을 교리가 아닌 세속적 학문에 의거하여 판단하려 들었고, 학자들의 논리를 마치 교리처럼 맹신하였다. 인쇄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모든 학문이 텍스트화 되었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 쉽게 결합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낳곤 하였다.

동양학의 원조, 혹은 동양학에 관한 텍스트의 모태가 된 텍스트는 동양학의 선구적 영웅인 사시(Silvestre de Sacy), 르낭(Ernest Renan), 레인(William Lane)의 저서들이다. 이들은 동양학을 과학적·합리적 기초 위에 세우려 하였고, 그리하여 모범적인 저작을 탄생시켰다. 아라비아어, 시리아어, 칼디아어, 헤브루어에 정통했던 사시(1758-1838)는 『부바르와 페퀴셰』에서 부바르와 페퀴셰가 아라비아어 강의를 들으러 갔던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의 언어학 교수로 봉직한 교육자였던 동시에 프랑스 정부의 외교자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사시는 동양의 고문서를 섭렵하여 『일반 문법의 원리』 *Principes de grammaire générale*, 『아랍 명문선집』 *Chresthomathie*, 『아라비아어 문법의 범례집』 *à l'usage des élèves de l'Ecole spéciale* 등의 저서를 남겼는데 무엇보다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던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밝혀내어 조명하였다는 것이 그의 가장 위대한 작업일 것이다. 그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숨어있던 동양을 '구출'하여 유럽인들에게 규범화하여 보여주었고, 여러 학자들을 배출함과 동시에 그들이 계승할 수 있는 텍스트의 규범을 낳았다.

사시의 계승자인 르낭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문헌학자로서 동양의 열등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한 학자이다. 사시와 르낭은 서재에 파묻혀 기존의 방대한 서적에 의존하여 동양을 해석한 학자들이다. 반면 19세기는 많은 유럽인들이 동양을 방문한 시기로 순수한 학문적 저서외에 동양에 대한 여행기가 많이 출판되었다. 에드워드 윌리엄 레인의 『현대 이집트인의 풍습과 습관』 *Account of the Manners and Customs of the Modern Egyptians*(1836)은 레인이 1820년대와 30년대 두 번에 걸친 이집트 체류를 기초로 하여 저술한 저서로 그 후 이집트를 여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지침서가 되었으며, 플로베르도 이 책을 많이 참조하였다. 레인은 그의 저서에서 동양인의 사악성, 특히 성도덕의 문란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아라비안 나이트』 *The Thousand and One Nights*의 번역자였다는 사실로 볼 때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앙뜨완느 갈랑(Antoine Galland)이 유럽 최초로 번역한 후 여러번 번역이 되었을 정도로 유럽에서 주목을 받았으므로 유럽인들이 이 책의 내용을 동양인의 일반적인 생활 풍속도로 간주하였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상 이 책은 아랍에서는 특히 아랍의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 속에 성애의 묘사가 너무 많으므로 전통적인 이슬람 사회에서는 공공연하게 읽혀질 수 없었으며,

순문학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민중의 오락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실상 성도덕에 관해서는 유럽의 기독교 문화권보다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더욱 엄격하였다. 그러므로 레인은 이집트에 실제로 체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보다는 그의 선입관에 의해 책을 썼다는 의혹을 받을 만하며, 학술적인 목표로 저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보다 일반 유럽인들의 흥미 도구기에 더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편견과 선입관은 너무나 고질적인 것이어서 그 후의 여행자들에게서도 그대로 답습된다.

샤또브리앙(François-René Chateaubriand)이 북아메리카를 여행한 후 쓴 『파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파리로』 *Itinéraire de Paris à Jérusalem, et de Jérusalem à Paris* (1810-1811)에서 ‘나는 영원히 나 자신에 관하여 말한다’고 하였듯이, 그가 동양에 관하여 말할 때 동양에 대한 객관적 관찰을 토대로 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이나 희망을 투영하였다는 것이 보다 옳은 평가이다. 샤또브리앙은 아랍의 문명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문명, 종교, 습속이 저속하고 야만적이므로 그들이 유럽에 의해 지배받는 것은 당연하며, 과거의 십자군도 이슬람 세계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우르만 세력이 유럽까지 미쳤으므로, 그것에 대해 기독교들이 반격한 것에 불과하다고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 플로베르 역시 그의 여행기를 보면 『이집트의 플로베르』 *Flaubert in Egypt*에서 동양인들의 기괴성과 열등성으로 인해 영국이 곧 이집트를 장악하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므로 상관치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동양인은 노예 근성을 타고난 열등 인종이므로 이들을 지배하는 것은 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이라는 근본적인 편견이 이들의 뇌리에 뿌리 박혀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샤또브리앙의 동방여행은 라마르틴느(Alphonse de Lamartine)의 동방여행을 낳았고, 라마르틴느의 여행은 네르발(Gérard de Nerval)의 동방여행을 낳았으며, 네르발의 여행은 플로베르의 동방여행을 낳아, 각각의 작가들이 차례로 앞 사람의 여행기를 다시 쓰는 작업을 하였다. 라마르틴느는 샤또브리앙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양이 조각조각 분할되어 유럽의 종주국으로 전락하는 해체과정 중에 있다고 보았고, 네르발은 주로 레인의 저술에 의지하여 동양을 여성과 성욕에 비유하였으며, 동양을 여성으로 본 예는 플로베르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당시의 대개의 여행자들이 여행에 앞서 여행지에 관한 책들을 읽었듯이 플로베르도 이집트로 여행을 떠나기 전 이집트에 관한 상당한 양의 책을 읽었는데, 이들 중에는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전에 발간된 볼르네 백작(Constantin-François de Volney)의 『이집트와 시리아 기행』 *Voyage en Egypte et en Syrie*(1787)과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회고록인 『이집트와 시리아 원정』 *Compagnes d’Egypte et de Syrie*(1798-1799)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책들은 동양을 프랑스에 알리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쓰인 동양 안내서가 아니라 동양을 제패하기 위한 전략이 수록된 실용적인 참고서였다. 동양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저술 생산을 뛰어 넘어, 정치적 도구로 변질

된 채, 정치적 담론을 재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치가 뿐 아니라 일반 작가들까지 이런 텍스트를 읽으며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1849년 플로베르는 이집트 여행을 떠나기 앞서 프랑스 정부에 들러 실용적인 임무를 맡겨 줄 것을 자연스럽게 요구하였고, 프랑스 정부는 나폴레옹의 실각 이래로 이집트를 잃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이집트 정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로베르에게 프랑스의 상공부(Chambres de Commerce)에 이익이 될 만한 항구나 카라반 센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겼다. 이 정치적 임무 덕분에 플로베르는 이집트에 도착하여 상당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이집트의 최고 실력자(Soliman Pasha)에게 소개되어 그의 주선으로 호화스러운 여행을 하게 된다. 그가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목격한 이집트 주민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가 서양인으로서의 우월감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 나는 이글거리는 빛을 통해 동양을 처음으로 바라보았다. 빛을 통해 보았다기보다는 빛 속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이 더 옳다. 그 빛은 바다 위에서 녹아버린 은갈았다. 곧 해안의 모습이 드러났고, 내가 육지에서 처음 본 것은 마부가 모는 한 쌍의 낙타였다. 그리고 나서 부두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아랍인들을 보았다. 상상하기 어려운 평음 속에서 하선이 이루어졌는데, 이곳 저곳에서 니그로, 낙타, 티번, 몽둥이 소리와 귀가 찢어질듯한 외마디 소리가 들렸다. ... 이 곳에서는 몽둥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더러운 옷을 입었거나 옷을 거의 안입은 사람들을 꿰고 있었는데, 내가 옷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끼를 말하는 것이다 (Stegmuller, 1972: 28-29)»

본 논문의 서론에서 인용된 카르타고의 용병들에 대한 묘사에서도 플로베르가 백인은 여러 인종으로 분류하여 부르면서 흑인들은 단지 ‘니그로’로 지칭한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도 이집트인들을 아랍인과 니그로로 구분하여, 니그로는 낙타같은 동물이나 티번이나 몽둥이 같은 사물과 동등하게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미국의 저명한 영문학자 데이비드 스퍼(David Spurr)는 그의 저서 『제국의 수사학』 *The Rhetoric of Empire*에서 동양인들을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시선에는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자의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고(reporting)는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각적인 관찰은 보도자의 목격자로서의 기능의 본질이다. 그러나 기자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 그렇게도 충실하게 의지하는 시선은 특권인 만큼 배타를 나타낸다. 즉 시찰하고, 조사하고, 바라보는 특권은 그 성질상 관찰의 대상으로 지정된 인간적 현실로부터 그 보도자를 제외시킨다 (Spurr, 1993: 13).

어떤 사실을 ‘보고’하는 일은 눈으로 직접 보는 일로 시작된다. 그리고 ‘보고’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나 보도자가 구애받지 않고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관찰할 수 있을 때, 즉 관찰되는 대상 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시선에는 어느새 특권의식이 실리게 되고 그 결과 보도자와 보고 내용은 현실과 유리된다. 이것이 소위 ‘시선의

이데올로기'이다. 플로베르가 이집트를 관찰하며 쓴 기록에도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이집트와 이집트인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군림한 채 그들을 주시하며 쾌감을 느끼고 있음이 가끔 인지된다. 그러므로 그의 관찰과 기록은 현실과 유리되고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타인을 마음대로 관찰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플로베르의 동양에 대한 태도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주장한 '권력과 감시의 밀접한 관계(the intimate relation between power and visual surveillance)'이며, 플로베르는 대상을 매우 권위적으로 '연구대상'이나 '감시대상'으로 바라보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플로베르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동양에 대한 텍스트를 저술할 때에는 여러 다른 텍스트를 참조하여 나름대로의 환상을 품은 채 왜곡된 텍스트를 양산하였으며, 실제로 동양을 여행하여 그 경험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저술했을 때에도 당시의 여러 정치적, 문화적 배경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이기적인 담론만을 생산하였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IV. 플로베르의 동양관

19세기 유럽의 제국주의를 논할 때,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정책을 비교할 때 우리는 흔히 영국의 실용주의적 경제적 식민정책이 거대한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지배하는데 유용하였다고 평가하는 반면, 프랑스 정책은 경제 원리를 무시한 채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외국 진출로 풀겠다는 정치 논리가 지배적이었으므로 경제적인 큰 손실과 함께 식민지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결과만을 낳았다고 평가한다. 1815년까지만 해도 주로 대륙의 확장에 관심을 쏟던 프랑스는 중산층의 충성심을 얻기 위해 민족주의를 강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샤를르 10세는 1830년 알제리를 침략한다. 이런 전략은 루이 필립에 이어 나폴레옹 3세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1862년 멕시코를 침략하는 모험을 감행하지만 미국의 개입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 입은 채 물러나게 된다.

이런 도피적 정치 행태는 동양 또는 이국을 '이상향'으로 노래하며 그 속으로 도피하고 싶어했던 낭만주의 시인들의 염원과 유사점을 갖고 있다. 플로베르의 경우에도 동양은 '도피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플로베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플로베르가 프랑스를 다루는 사실주의적 작품과 동양을 다루는 낭만주의적 작품을 번갈아 썼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확인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대립적 경향이 서로 교차하는 까닭은 플로베르의 문학적 기질 속에 이 두 가지 성향이 공존하는 탓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주의 작품에서는 프랑스 내의 혼란스러운 사회 모습과 이런 사회 속에 던져진 젊은이들의 고뇌와 무력함을 다루고 싶은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낭만주의 작품으로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열정을 만끽하고 싶은 젊은이들의 욕망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주의 작품 속에 재현된 젊은이들의 모습이 플로베르 자신을 위시한

당대의 젊은이들의 자화상이라면, 낭만주의 작품 속에 재현된 젊은이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타자'로서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 '자신들이 지향하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4년 반 동안 『보바리 부인』을 쓰면서 천착해야 했던 프랑스의 부르주아들의 세계에 염증을 느껴 오래 전부터 쓰고 싶었던 동양에 대한 이야기를 『살랑보』로 구현했다는 플로베르의 고백에서도 확인된다.

플로베르에게 동양의 이미지는 '원시의 세계,' '무한의 세계,' '미(美)의 세계,' '자유 의 세계,' '환상의 세계,' '감각적 쾌락의 세계,' '절제하지 않고 욕망대로 살 수 있는 세계,' '미지의 세계,' '신비의 세계,' 등으로 이상화된 이미지이다. 이런 이미지는 당대의 낭만주의 작가들, 위고, 들라크루와(Eugène Delacroix), 네르발 등이 꿈꾸던 이미지와 비슷하며, 이런 이미지들이 모여 동양에 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이미지가 구성되었다. 동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던 세계를 '동양'이라는 한 단어에 응축시켜 가시화한 것이다.

플로베르는 『보바리 부인』의 세계에서 『살랑보』의 세계로 이전하면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계층상으로 삼중적 도피를 꾀하였다. 『보바리 부인』에서는 동시대의 프랑스의 부르주아 계층을 다루고 있으나, 『살랑보』에서는 고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카르타고를 배경으로 상류 계층의 여인과 용병 대장과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전자의 세계가 플로베르가 가장 혐오하던 '권태와 무능 그리고 속물들'의 세계라면, 후자의 세계는 '긴장과 쾌기, 그리고 완벽한 미(美)의 세계로 이 두 세계가 여러 면에서 상반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살랑보』의 세계는 플로베르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투영도이며, 상상 속의 대체물인 것이다.

반면, 플로베르가 자신이 처한 혼란스러운 세계와 정반대되는 세계로 완전히 도피했다는 주장과 정반대로, 당대의 프랑스의 사회적 상황과 비슷한 시대와 장소를 선택하여 사회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하고 분석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고대의 카르타고는 제2공화국의 프랑스의 문제점을 실험할 수 있는 무대로 설정되기에 이상적인 장소라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이 두 곳이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나, 면밀히 조사해보면, 카르타고가 용병들의 반란으로 위기를 겪는 과정이 '데카당스의 시대'라고 비난받던 19세기 프랑스의 미래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플로베르의 동시대의 지성인들은 부르주아들의 탐욕, 속물근성, 언론의 타락, 문학의 통속화를 비난하면서 이런 현상을 로마나 바빌론 등 퇴폐와 타락성으로 악명이 높았던 고대와 자주 비유하곤 하였다. 일레르 텐느(Hyppolyte Taine)와 키네는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로마제국의 운명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프랑스 국민에게 경고하곤 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플로베르가 카르타고의 위기를 모델로 하여 프랑스의 퇴폐성을 되돌아 보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카르타고가 임금을 착취당한 야만인 용병들의 반란으로 몰락의 위기까지 갔듯이 프랑스는 자체 내의 야만인, 즉 자본가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노동계급의 봉기에 의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

다. 플로베르는 『감정교육』 *Education Sentimentale*에서 ‘새로운 야만인들의 반란으로 인해 가축, 종교, 자유, 조국, 문명 전체가 멸망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1852년 루이즈 콜레(Louise Colet)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노동계급으로 인해 프랑스가 위기를 맞고 있긴 하지만 타락일로에 있는 프랑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야만인들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고도 쓰고 있다.

결국 플로베르가 만든 동양의 이상화된 이미지는 실제의 동양과는 별개의 것으로 그들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거나 도피의 구실로 왜곡시킨 것이거나 자기 시대에 대한 경중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유럽인들이 그려낸 동양의 이미지들이 실제로는 그들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라는 증거는 그들이 동양을 주로 ‘여성’의 이미지로 그려냈다는 점에서도 쉽게 입증된다. 라이자로우(Lisa Lowe)는 그의 논문 「국가주의와 이국취미」 “Nationalism and Exoticism”에서 플로베르의 작품에 나타난 동양이 서양의 타자로서 프랑스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서양 대 동양,’ ‘남성 대 여성,’ ‘부르주아 계층 대 노동계급,’ 등의 대립관계 및 지배관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18세기의 프랑스 문학 작품들은 동양을 소재로 선택했을 경우 동양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가공의 세계속에 은유적으로 반영된 서양인들의 자아를 형상화하였으나, 19세기에 들어서는 두드러지게 서양 남성들의 타자로서 그리고 욕구의 대상으로서 여성에 비유되었다. 여성적 동양이 ‘남성적 서양과 차이가 나는 것,’ ‘남성적 서양이 욕망하는 것’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천일야화』 등 동양여성들에 대해 왜곡되게 묘사한 책들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플로베르가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본 동양 여성들에 대한 묘사와 앞에서 인용하였던 동양 남성들에 대한 묘사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최하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여인들은 베일을 쓰고 있었다. 그들의 코에는 마치 말의 장식처럼 축 늘어져서 좌우로 흔들리는 장식을 달고 있었다. 반면에 당신이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그들의 풍만한 가슴을 보게 될 것이다 (Stegmuller, 1972: 29).

우리는 앞에서 플로베르가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목격한 광경에 대한 묘사에서 니그로들을 동물과 나란히 열거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위의 묘사에서도 동양여인을 말과 비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양남자들을 묘사할 때에는 신체적 특성보다는 의복에 대해서 언급한 반면, 동양여자들에 대해서는 얼굴과 가슴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동양여자들에 대한 유럽 남자들의 성적 관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플로베르의 작품 『살랑보』에서도 이런 성격이 드러나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 살랑보는 처음 등장시부터 못 남성들의 욕망을 유발하는 듯이 묘사되고 있으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자세한 묘사는 그녀를 바라보는 야만인 용병들의 노골적인 시선을 대변하는

듯하다. 다양한 색채를 뿜어내는 보석으로 치장된 머리카락, 드러난 팔의 모습, 가슴에 매달려있는 금사슬 등 성욕을 자극하려는 듯이 표현되어 있다. 용병들의 대장이자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인 마토는 용병들을 지휘하여 카르타고의 침공을 용감하게 진행시키지만 그의 실제의 목표는 카르타고가 아니라 일관되게 사랑보이다. 마치 마술에라도 걸린 듯이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보를 얻기 위해 그는 생명까지 바치는데, 동양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사랑보가 ‘동양’ 그 자체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 가까이 갈 수 없는 신비의 여자’로, ‘쟁취의 대상’으로, 그리고 ‘정복의 대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사랑보의 아버지 아밀카르는 이웃 부족의 도움을 얻기 위해 사랑보를 이웃 부족장의 아들에게 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사랑보가, 즉 여성이 이번에는 ‘교환의 대상’으로 상품화되고 있다.

플로베르 자신도 동양 여성에 대한 성적 관심을 실행에 옮겨 이집트를 여행하는 동안 이집트 여성들을 찾아 다니곤 하였다. 그 중에서도 플로베르의 기억에 가장 오랫동안 남은 여성은 무용수 쿠츠크 하넬(Kuchuk-Hânem)으로 그 후 그가 쓴 작품에 등장하는 관능적인 여성의 전형이 되었다. 플로베르의 동양 여성에 대한 이런 시각은 여타의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감정교육』에서 주인공 프레데릭과 그의 친구 데로리에는 어린 시절 몰래 ‘터키 여자’ 집을 가는데, 이 곳은 남자들이 여자들 몰래 찾아가는 매음굴로 여기에서도 ‘터키 여자’라는 동양 여성을 내세워 관능성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프레데릭이 아르누 부인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지는데, 이 때 동양의 가락을 연주하는 하야프 소리를 듣는다든가, 파리의 댄스 홀의 이름이 알람브라이며 내부가 무어식과 중국식으로 치장되어 있는 등, 동양은 대개 여성의 이미지로 그리고 ‘이성’과 대립되는 ‘감정’과 ‘감성’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동양은 서양인들에게 ‘열등한 곳,’ ‘괴이한 곳,’ ‘비정상적인 곳’으로 간주되었다. 플로베르가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목격한 여러 기괴한 장면의 묘사는(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공공연한 성행위, 원숭이와의 남색, 불임여성들의 기괴한 행위 등등)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정도여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그의 저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서 이 점을 파고 들어 플로베르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플로베르를 위시한 여러 서구인들은 이집트를 관찰하면서 동양이 ‘기괴한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림’이기를 바랐다는 것이 사이드의 주장이다. 서양인들은 이렇듯 동양인들의 기괴성과 열등성을 강조하여 자연스럽게 이들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지적 풍토를 마련하였다.

결국 위에 열거한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플로베르의 작품에 등장하는 동양여성들은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성애’나 ‘감정’을 상징한다. 서구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되어 근대과학이 발달하는 17세기에 이르러 ‘이성중심사상’이 팽배하게 되었으며, 자연과학자는 물론 철학자, 문호가들까지 합세하여 남성성의 특질을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 ‘정신세계’로, 여성성의 특질을 ‘감정’이나 ‘감성적 사고’ ‘물질세계’로 규정하여,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성별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이분법은 서양은 ‘남성

성'이며 '이성'이며 '정신'이고, 동양은 '여성성'이며 '감정'이고 '물질'이라는 이분법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었으며, 동양은 유럽인들에게 지배되어야 할 대상이자 상품으로 쉽게 간주되었다. 유럽의 작가들은 동양을 아름다운 여성에 비유하여 외형상으로는 동시대의 유럽인들에게 낭만적인 서정성을 고취시킨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동양을 정복하도록 부추긴 셈이다.

그러나 플로베르의 인종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그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바르와 페퀴세』는 그의 인종관이 한층 고차원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이 작품은 플로베르가 말년에 쓴 마지막 유작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회화화하여 표현한 작품이라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다. 그가 한창 이 작품을 쓰고 있었을 때에는 프랑스가 정치적으로는 보불전쟁에 패하여 온 국민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었을 때였고, 플로베르의 개인면에서도 모친의 사망과 뒤이어 가까운 친구들(루이즈 콜레, 조르주 상드(George Sand))의 사망, 유일한 친지였던 질녀 카롤린의 파산을 막기위해 자신의 전재산을 모두 양도하는 등 불행이 겹쳐 찾아왔다. 그의 문학적 기질을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작품 속에 짙은 회의주의와 허무주의가 깃들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여 그의 일생 전체를 '무'(無)로 돌리는 듯하다.

플로베르는 이 작품에서 두 주인공 부바르와 페퀴세를 내세워 원예, 화학, 고고학, 인류학, 역사, 문학, 정치, 철학, 교육, 종교 등 자신이 일생동안 관심을 갖던 주제에 대해 세심 연구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플로베르는 우선 이 두 주인공들에게 이들 주제를 철저하게 연구시키기 위해 수많은 전문 서적을 독파하도록 만든다. 물론 플로베르 자신도 작품을 구상할 때면 항상 그랬듯이 이 작품을 쓰기 위해 1,500권 이상의 책을 섭렵하였다.

마치 백과사전을 방불케하는 이 작품은 그러나 이들 주인공들의 노력을 희화적으로 표현하면서, 원예면 원예, 고고학이면 고고학에서 이들의 연구가 모두 실패하도록 결론 짓고 있다. 이들 주인공들의 모습이 수많은 책들을 참고하여 누구보다도 완벽한 사실주의 작품을 쓰고 싶어했던 플로베르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두 주인공의 연구와 실험의 실패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에서 우리는 플로베르가 동경하였던 동양의 이미지들이 그의 혼자만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가 읽었던 수많은 저서들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 이미지임을 보았다. 그가 여행으로 그 이미지들을 확인하였고 수정하기도 하였지만 후에 그의 작품에 재현된 동양은 처음에 갖고 있던 동양의 이미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플로베르는 자신의 작품들에 대해서도 그 작품들에 재현된 세계와 현실과의 유리, 어긋남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고, 자신이 그렇게도 새롭게 창조하려고 했던 작품들도 결국은 통상적인 관념의 재현일 뿐이라는 생각에 미쳤던 것 같다. 즉 싸이드가 말한 '텍스츄얼 애티튜드(textual attitude)'의 위험성, 다시 말하자면 책(텍스트)을 문자 그대로 믿어 현실에

적응시키는 일이 얼마나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는가를 질실히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책들을 섭렵하여 작품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생긴 자신의 책의 오류 가능성과 자신이 만든 책이 남에게 같은 오류를 저지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이중의 위험에 대해 그는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작품에서 자신이 일생동안 해온 일, 마치 부바르와 페퀴세처럼 독서를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재현하려 했던 자신의 필생의 사업 전체를 실패로 돌리는 허무주의적인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만년에 들어서서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그 동안 이룬 업적에 대해 철저히 회의하고 ‘무’(無)로 돌린 것은 한편으로는 문학의 대가로서 끝까지 대가다운 면모를 보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작품의 세계, 혹은 텍스트의 세계와 현실과 일치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서양인들, 특히 서양의 오리엔탈리스트들이나 동양을 다룬 문학가들은 현실 그대로의 동양을 작품 속에 그대로 재현했다기보다는 그들의 목적에 맞게(그 목적이 도피였든, 지배였든, 자국민에 대한 경종이었든) 왜곡하였으며, 플로베르는 이 사실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플로베르는 『부바르와 페퀴세』의 끝 부분에서 매우 흥미로운 예언을 함으로써 그의 인종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 작품은 안타깝게도 미완성 작품이어서 마지막 부분은 개요만 적어놓았는데, 부바르와 페퀴세가 인류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에서 이들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섭득할 정도로 정확히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 페퀴세는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간주하여 현대인이 마치 기계처럼 되고 도덕이나 종교는 사라질 것이며, 아메리카가 지구를 정복하고 상스러움이 보편화되어 결국에는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반면 부바르는 인류의 미래를 아름답게 생각하여 현대인은 진보하고 있으며, 풍선과 같은 기구, 바다 속을 달리는 유리창 달린 배로 여행하고, 햇빛을 축적하여 주택의 조명시설을 개선하고, 별에도 여행갈 수 있는 등 부족함이 없는 미래를 살리라고 예상하였다. 물론 이 두가지 예상 중 어느 것이 옳은지는 독자 각자가 판단할 문제지만, 본 논문과 연계해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밝게 보는 부바르가 다음의 인용에서처럼 역사의 법칙상 문명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온 것처럼 유럽이 아시아에 의해 소생되리라고 본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 날이 올 것이고 마침내 두 종류의 인류가 융합되리라고 예언하고 있다.

역사의 법칙에서는 문명이 동양으로부터 서양으로 이행되어 가므로, 유럽은 아시아에 의해 다시 지배될 것이다. 중국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두 종류의 인종이 융합하게 될 것이다 (Flaubert, 1881: 330).

이 글이 개요라서 이 주장의 자세한 근거나 논리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플로베르는 역사의 순환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서양과 동양이 합쳐되는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었던 것 같다. 즉 플로베르의 동양관은 자신의 시대의 조류에 휩싸여 ‘부정’적인 측면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한층 높은 차원에서 다시 ‘긍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즉

음을 앞둔 천재적인 문학가로서 미시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두 세계가 서로 화합해야 하며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아날지라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다고 비난받는 제국주의의 만행의 근원이 된 19세기의 인종관에 대해 학문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을 두루 고려하여 밝히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측면들이 문학 작품에는 어떻게 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데 있다. 프랑스 당대의 정치적 혼란은 국내에서 문제를 풀지 못한 정치인들이 국외 진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피적 행태를 낳았고, 이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학문으로 이들의 진출을 이론적으로 도왔으며, 문학에서도 이국적 취미의 고양으로 일조하였다. 정치인들의 외국 진출은 무력에 의한 시장 확보가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문화 수준이 낮은 인종들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가면을 쓴 채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이론화에는 당시 크게 발달하던 인류학, 생물학 등이 크게 이바지하였고, 문학에서는 ‘동양’을 ‘신비한 여성’의 이미지로, 그리고 ‘완벽한 미’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쟁취’의 대상으로, 정복의 대상으로 그리는 텍스트를 생산하였다. 학계에서나 문학계에서나 대개의 텍스트들이 이전의 텍스트의 영향 속에서 재생산되는 경향이 많았으므로, 동양 혹은 타인종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이미지와 기존의 이미지의 재생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현실과 동떨어진 인종관이 형성되었고 유포되었다.

그러나 플로베르는 마지막 작품에서 역사의 순환성을 강조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융합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서양의 문화의 근원에는 동양이 숨겨져 있으므로 언젠가는 동양이 다시 일어설 날이 올 수 있음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 두 세계가 융합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래야만이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존속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극성을 부렸던 제국주의의 경쟁에서 프랑스는 철저한 경제논리를 적용한 영국에게 번번히 밀려 경제적 손실만 입곤 하였지만, 프랑스의 식민지 배를 받던 국가들이 다른 식민지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 언어와 문화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프랑스의 비현실적인 식민정책 그리고 프랑스 고유의 이상주의적 행태가 문화 교류의 위업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이다. 이것은 플로베르의 동양관에서 엿볼 수 있던 가능성의 미숙한 열매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시선을 보다 현대, 즉 20세기 말로 돌려보면 인종이나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여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세계의 어디에선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갈등은 계층, 성별차이로 인한 갈등, 남북한의 갈등과 함께 지배권 싸움의 단면들이다.

생물학적인 차이는 극복될 수 없으나 사회적, 문화적 차이는 극복될 수 있다. 각 자의 고유한 종교나 문명을 포기하는 획일적 문화를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 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문화로 서로를 포용하자는 것이다. 세계인으로서의 윤리 의식으로 인종, 성별, 계층,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적으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 이상의 해결 방법은 없다. 역사란 순환하는 것이며, 지배와 피지배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간의 열린 마음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인종차별, 제국주의를 다룬 텍스트 및 기본 이론편〉

- Foucault, Michel. 1972. *The Archeology of Knowledge and the Discourse on.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Language*, trans. A.M. Seridan Smith and Rupert Sawyer. New York: Pantheon Books.
- _____.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Pris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Pantheon Books.
- Guillaumin, Colette. 1995. *Racism, sexism, power and ide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obson, J.A. 1938. *Imperialism, A Study*. London: G. Allen & Unwin Ltd.
- Liauzu, Claude. 1992. *Race et civilisation*. Paris: Syros.
- Lloyd, Cathie. 1993. "Racist Violence and Anti-racist Reactions: A View of France." *Racist Violence in Europe*. (ed) Björge, Tore and Witte, Rob.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207-220.
- Renan, Ernest. 1890. "Des services rendus aux sciences historiques par la philologie." in *Oeuvres complètes*. 8. (ed) Henriette Psichari. Paris: Calmann-Lévi.
- _____. 1890. "Histoire générale et système comparé des langues sémitiques." in *Oeuvres complètes* 8. (ed) Henriette Psichari. Paris: Calmann-Lévi.
- Said, Edward W. 1978.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 Schwab, Raymond. 1950. *La Renaissance Orientale*. Paris: Payot.
- Smith, Woodruff D. 1982. *European Imperialism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Chicago: Nelson Hall Inc.
- Spurr, David. 1993. *The Rhetoric of Empire*.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Stocking, George W. 1982. *Race, Culture, and Evolu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omlinson, John. 1991. *Cultural Imperialism*. London: Pinter Publishers.
 Quinet, Edgar. 1857. "La Génie des religions." in *Oeuvres complètes*. Paris: Paguerre.

<플로베르의 텍스트>

Flaubert, Gustave. 1857. *Madame Bovary*. Pari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83년판 인용).
 _____ . 1862. *Salammbô*. Paris: Editions Gallimard (1970년판 인용).
 _____ . 1869. *L'Education Sentimentale*. Pari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83년판 사용).
 _____ . 1881. *Bouvard et Pécuchet*. Paris: Garnier-Flammarion (1966년판 인용).
 _____ . 1973. *Correspondance*. I. & II. Paris: Bibliothèque de Pléiade.

<플로베르에 관한 텍스트>

Brombert, Victor. 1966. *The Novels of Flaubert: A Study of Themes and Techniqu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 1981. *Flaubert*. Paris: Editions du Seuil.
 Dallal, Jenine Abboushi. 1996. "The Beauty of Imperialism: Emerson, Melville, Flaubert and al-Shidyaq." a thesi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Green, Anne. 1982. *Flaubert and the Historical Novel: Salammbô reassess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we, Lisa. 1995. "Nationalism and Exoticism: Nineteenth Century Others in Flaubert's *Salammbô* and *L'Education Sentimentale*." *Macropolitics of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ed) Jonathan Arac and Harriet Ritvo.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Sherrington, R.J. 1970. *Three Novels of Flaubert*. Oxford: Clarendon Press.
 Shroder, Maurice Z. 1970. "On Reading *Salammbô*." *L'Esprit Créateur* 10(1). Spring. pp. 24-35.
 Steegmuller, Francis. (trans. and ed.) 1972. *Flaubert in Egypt.*, New York: Penguin Classics.
 Thibaudet, Albert. 1935. *Gustave Flaubert*. Paris: Gallimard.

<기타>

송경숙, 전원경, 조희선. 1992. 『아랍문학사』 서울: 송산출판사.

RACISM IN FRANCE IN THE 19TH CENTURY AND FLAUBERT

MINN KYUNGSOOK

School of General Education of Yongin University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sulted from French Revolution prepared theoretical and practical grounds for eliminating racial discrimination deeply rooted in the contemporary French society. However, the results were that French Revolution only suggested 'ideals' of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and in reality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of other races or jews kept on existing at home, and overseas French administrators proceeded to colonize weaker races. To solve prolonged political confusions caused by French Revolution and conflicts between classes, French politicians tried to find their ways into neighboring countries, specifically North Africa and Near Orient, and farther into Southeast Asia and South America. However, as France plunged into colonial enterprises with political aims in contrast with Great Britain who established colonial policies based on the thoroughly economical principles, she found more failures than successes.

In the meantime, French intellectual world made progresses in diverse sciences such as geography, anthropology, biology etc. and scientism and exoticism were linked together to issue important bases for racist theories. And the intellectuals including scientists and men of letters produced and reproduced the racist discourse mainly through texts, which inevitably proved to stray from the reality.

This study examines the fact that we can find the political, cultural, academic characteristics of French society in the 19th century we have seen above, in the works of Gustave Flaubert, one of the most important French authors of that period. Above all, he treated Oriental countries in his works as a means of evading his own country. And he had limitations that he represented his own image of the Orient not the real world, mainly because he was under a great influence of his predecessors' texts and the academic mood.

But his idealistic estheticism which he sought to realize in his oriental works, for example, *Salammbô*, his respect for culture without ideological purposes, and his historical consciousness of circularity give us a possibility that he hoped to have a world bloomed with various kinds of cultur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ies. So I think that it is not a coincidence that the colonized peoples whom France colonized

accepted and even loved French culture and language without resistance, while those whom other European countries colonized resisted severely their cultures and languages.